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⑫

後來 釋迦佛出世的時候
후래 석가불주세적시후
波斯聖王 很相信佛法 取釋種女
파사나왕은종신상법법 취석종여
生下一箇太子 名叫琉璃
생하일개태자 규작유리
琉璃幼時 在釋種住的迦毗羅城讀書
유리유시 재석종주적자비라열성독서
一天爲惡戲 坐佛的座位 被人罵他
일천위인희 좌불적좌위 피인독타
把他拋下來 恨恨在心
파타포하래 회한재심

제대제자청문분
佛迦將過去村民 獲魚類 那段公案說
불변장가거촌인객어류나단공안설출

목건련존자가 신통력으로써 석가족 5백인을 발우에 넣어 공중에 매달아서 저들을 구출코자 했다. 그러나 발우를 내렸을때 5백인이 모두 피로 변한 것을 어찌 알았으리오.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촌민들이 고기를 먹던 그러한 일을 말씀하셨다.

후날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왔을 적에 파사의 왕은 사납지만 불법을 믿어 석가족 여자를 얻었는데 거기서 한 태자를 낳아 유리라고 불렀다. 유리는 어린 시절 석가족이 살고 있는 가비라 성에 머물며 공부를 했다. 하루는 놀이 삼아 부처님께서 않는 자리에 앉았다가 사람들의 구지람을 듣고 달려 내려오게 되었으므로 마음속에 한을 품었다.

那時大魚 就是現在的 琉璃王前身
나시대어 취시현재적 유리왕전신
他將魚類的公案 就是當日池裏的魚類
타을령적군대 취시당일지리적어류
現在被殺的迦毗羅城居民 就是當日獲魚
현재피살적라열성거민 취시당일객어
的人
적인
佛本身就是當日的小孩
불본신취시당일적소해
因爲做了魚類三下 所以現在要講迦南
인위교료어삼하 소이현재요조두통
三天之報
삼천지보

及至他作國王 便率大兵攻打迦毗羅城

“전생에 장난삼아 고기머리 세번 때려 부처님은 삼일간 두통의 과보 받았다”

급지타작극왕 변술대병공타가비라열성
把城裏居民盡殺殺戮
파사리거민진수살륙
當時佛頭痛了三
當시불두통료삼천
諸大弟子 都講佛說法 解救他們
제대제자 도창불설법 해구타문
佛說定業難轉
불설정업난전

그때의 대어는 현재의 유리왕의 전신이다. 그가 이끌던 군대는 당시 못에 살던 고기였다. 오늘 날 피살된 가비라성 주민들은 당시에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다. 부처님 당시는 그때의 소년으로 고기의 머리를 세번 두드린 까닭으로 지금에 와서 삼일간 두통의 과보를 받은 것이다.

그가 왕이 되자 문득 대병을 이끌고 가비라 성을 공격해서 성의 주민들을 끌어내 남김없이 죽였다. 당시 부처님께서는 삼일동안 두통을 겪었다.

定業難逃 所以釋族五百人
정업난도 소이석족오백인
難彼百蓮尊者救出 也難逃性命
수피목련존자구출 아난도성명
後海 琉璃王 生墮地獄
후해 유리왕 생타지옥
怨怨相報 沒有了期 因果實在可怕
원원상보 풀유료기 인과실재가과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께 법을 펴서 저들을 구제해 달라고 청했으나 부처님께서는 정해진 업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하셨다.

정해진 업은 피하기 어려운 까닭에 석가족 오백인은 비록 목건련 존자의 구출을 받았으나 생명을 잃게 되었다. 후에 유리왕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원한과 원한을 서로 갚아 그칠 날이 없으며 인과는 실제이니 기회 두려운 일이다.

目犍連尊者 以神通力 用鉢搗藏
목건련존자 이신통력 용발삽장
釋迦親族五百人在空中
釋迦親族五百人在空中
滿以爲把他們救出
滿以爲把他們救出
만이위파타문구출
那知放下來時 已盡變爲血水
나지방하래시 이진변위혈수
諸大弟子請問佛

龍眼

대중문화에 전생 신드롬 ‘일파만파’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호진스님에게 듣는 불교의 전생관

요즈음 갑자기 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생 이야기들이 책으로 영화로 텔레비전의 드라마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대중가요와 만화에까지 취급되고 있다. 전생을 다룬 한 영화는 관객 동원의 기록에 도전했고,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정신과 의사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들은 최면요법으로 환자들이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하다가, 환자들이 현생을 넘어 전생의 일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전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전생퇴행요법(前世退行療法)’이라는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정신과 의사가 쓴 전생에 관한 책들도 적지 않게 팔리고 있다.

전생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저술들이 이미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쏟아져 나올 것 같다. 사람들의 전생에 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높아 가고 있다. 전생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닌데 왜 요즘에 와서 세삼스럽게 이렇게 야단들인가. 서양사람들이 만든 영화나 그들이 쓴 저술에 자극을 받은 때문인가. 아니면 어느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현실사회의 불안감의 반영인가.

이처럼 갑자기 전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자, 오래전부터 전생을 믿어 온 불교인들은 오히려 여러동경해진다. 역시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열려서서 마음이 되기도 한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생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불교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보편적인 사실로 돌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무런 사상도 이론도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일시적인 호기심의 만족이나 심심풀이의 이야기 수준에 머물고 말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현실불안감 반영인가

불교의 역사에서 보면 전생문제가 문학작품의 주제로 사용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천년 이래 수많은 종교적인 저술, 문학 그리고 예술작품들이 만들어져 왔다. 역시 전생 이론이 병의 치료에도 사용되었다. 인도 고대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전생에서까지 찾았다. 그러나 전생문제가 단순히 문학작품의 주제로나, 호기심의 만족이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전생이론은 인생과 자연과 세계에

대한 설명이고 열쇠였다. 전생사상은 ‘윤회(輪廻, samsara)’라는 이름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동양사상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부처님도 사실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 수도했고, 그의 가르침은 윤회문제를 푸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인도 바깥으로 전파되면서 윤회사상은 전 동양에 알려져, 동양의 사상과 문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윤회이론은 인류의 영원한 문제인 생

데도 지능이나 성격이 다르다. 오라새끼는 어떻게 해서 앞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연못으로 뛰어들어 헤엄을 칠 줄 아는가, 개구리는 뱀에게 한 번도 잡아 먹혀 본 일이 없는데도 왜 뱀만 보면 질겁을 하고 달아나는가. 이와 같은 의문들은 전생을 전제로 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전생의 결과가 현생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와 내가 왜 그렇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가. 나는 너에게 특별히 미워할 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너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가. 부모끼리의 관계, 부모 자식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상은 불교의 핵심인 것이다. 요즈음 책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전생 이야기들은 어떤 원지도, 사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작가들 각각의 상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 쪽에서 보면 자칫 이와 같은 작품들이 전생 또는 윤회사상에 대해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재생사상이 순전히 환상적이고 허무맹랑한 것으로, 단순히 공상소설의 이야기 꺼리 정도로 인식되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열반은 불교 최종목표

어느 영화에서처럼, 사랑에 빠진 공주와 약사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위해 은행나무로 환생한다는 이야기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얼토당토않은 것이다. 윤회는 오직 유정물(有情物=동물)만이 할 수 있다. 무정물(無情物=식물이나 광물등)에게 윤회는 없다. 동물이 식물로 되거나, 반대로 식물이 동물로 될 수는 없다. 윤회를 하게 하는 원동력은 유정의 존재가 짓는 행위, 즉 업(業, karma)에 의해서인데, 업은 동물만이 짓는 것이다. 업이 없으면 윤회는 없다. 정신과 의사가 말하고 있는 전생 이야기도 정통 윤회설에 의하면 가능성이 없다. 사람은 죽으면 즉시 자신이 현생에서 지은

업대로 다른 존재로 된다. 아무리 늦어도 49일 안으로는 다음 생이 결정되게 된다. 한 생에서 다음 생(生) 사이에 수십년, 또는 수 백년간의 공백이 있을 수 없다. 한 생이 끝나면 바로 다음 생이 꾸따된다. 이것은 모든 존재에게 헤일수도 없는 전생이 있었고, 앞으로도 없었던 전생(前生)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몇 번의 환생을 했는지, 전생경연이 몇 번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최면을 통해 전생을 기억함으로써 병이 치료된다는 것도 불교의 윤회설과는 어긋난다. 윤회설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아야만 그 행위가 소멸된다. 전생의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병의 원인이 제거되어야지, 단지 최면을 통해 전생의 그 일을 기억해 낸다고 해서 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치료한 어떤 환자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서 여러 차례 환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623년에는 합경도 지방에 살았던 고구려의 귀족으로, 12세기에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 근방의 마사이 족 전사(戰士)로, 1231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양치기로, 1338년에는 스페인의 농부로, 15세기 중반에는 인도의 거저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전생의 관계가 현생까지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삶이 고생스러운가”라는 말을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때 그 원인을 전생에서 찾으려고 한다. 자신이 전생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윤회이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의 형성과 우주 질서 문제까지도 답을 준다.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그 속에 사는 중생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어떤 지역은 메마르고 거친데, 어떤 국토는 풍요로운가. 자연과 우주의 문제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의 전생과 현생과 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불교의 세계론 또는 우주론은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처럼 윤회사

“드라마·소설등 전생소재 호기심 자극 윤회이론 뒷받침 없어 오도 우려” 전생퇴행요법 불교 윤회설과 달라



호진스님

1941년 경남 울산 출생,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프랑스로스브스 대학 철학과 졸업. 종교학 박사, 현재 동국대학교(경주 캠퍼스) 불교학과 부교수. 초기불교 전공, 저서로 <우아·윤회(無我·輪廻)문제의 연구>가 있다.

(生)과 사(死)의 의문에 대해 답을 준다. “우리는 전생을 살다가 현생으로 왔고, 현생을 살다가 후생으로 간다. 그리고 후생에서 죽어 다시 현생으로 온다”는 것이다. 과거의 ‘현생(現生)’은 현재의 전생(前生)이 되고, 현재의 생(生)은 미래의 ‘전생’이 된다. 이와같이 전생과 후생은 한없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끝없이 되풀이된다. 자연계에서 풀잎이 거의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순환하듯이 생명체도 그렇게 순환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인간 불평등의 문제도 그리고 자연의 신비문제도 윤회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한가,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데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집 아들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추하게 생겼는가. 왜 쌍둥이는 한 태(胎)에서 태어났는

간병전문인 교육 안내

바라밀 간병인 협회에서는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복지공익사회를 이룩하는데 참여할 자원봉사자와 유료전문간병인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유료간병을 원하시는 분은 시내 각 병원이나 가정의 환자와 연결하여 간병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당장 유·무료에 동참하지 못하시더라도 교육을 받아 놓으시면 가정과 사회에서 요긴하게 쓰일 전문 능력입니다. 이웃에 권하시어 배움의 기회를 함께 합시다.

- 일 시 : 불기 2540년 9월 10일 ~ 9월 14일 (5일간 20시간, 오후 1~5시)
- 교육장소 : 사단법인 바라밀 간병인 협회
- 훈련대상 : 주부 및 준고령자 60명(선착순) 남-30~60세, 여-30~60세
- 훈련과목 : 간병인 및 호스피스
- 수 강 료 : 전액무료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증명사진 2장, 도장
- 문 의 처 : 사단법인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 협회 전화(051)633-6412~3 전승(051)631-3884

사단법인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 협회

우학스님 수필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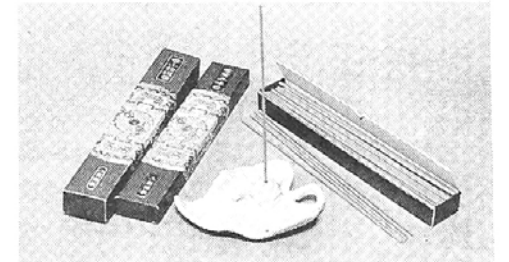
이 시대 베스트셀러

- 나오는 내용 -
- 좋은인연의 추억들 -
-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서)
-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수행 의식집)
- 4 불교한자공부·사경및 해설 (금강경·천수경·반야심경·법승계·화엄경약찬게·예불문·아미타경)
-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二載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눈이 따갑거나 목이 부어오르지 않습니다. 화장품이나 비누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향기는 깊고 고상합니다. 24가지 천연약재와 귀한 백단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설산수도향(雪山修道香)과 영취삼매향(靈鷲三昧香)은 불자들의 건강까지도 생각합니다.

취급점포 및 사원모집

사무직(여) 0명, 주5일 근무
포장직(여) 0명, 주5일 근무
영업직(남·여) 0명, 주1일 근무

* 주부 재가신도 환영
회사내규에 의한 급여
상여금 300%
의료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TEL : 467-6047~5 FAX : 467-6045